

PBF 2025 미래세대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내년은 17년 만에 세계시민포럼 개최 계획도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올해 세계기상기구의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초과했다.’는 발표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이 말한 기념사 중 일부다. 조 이사장은 “오늘의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핵, UAP(미확인항공현상) 등 새로운 이슈에 이유를 묻고 과거와 다른 도전과제를 맞이할 때임을 강조했다.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25 Peace BAR Festival(PBF)’이 지난 19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행사는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특별 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순서로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1982년 이래 매년 인류사회의 평화와 미래문명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PBF를 개최하고 있다. PBF에서 BAR은 ‘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PBF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로, 세계 석학들이 모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문명과 지구의 생명을 아우르는 공동의식을 되돌아보고 미래 정치와 시민의 실천에 대해 논의했다.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 “서로 연대하고 진실을 얘기할 때”

특별 대담에서는 조 이사장과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석한 하버드 대학교 나옴이 오레스케스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프린스턴 대학교의 존 아이켄베리 국제정치학 석좌교수가 5년 만에 만나 그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했다. 이들은 5년 사이에 팬데믹, 핵무기 확산, 전쟁, AI 등 장 등 여러 복잡한 사건들의 발생을 언급하며 오늘날 인류는 더욱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과거 양극체제에서 오늘의 세계는 다극화됐지만 오히려 누구 하나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선임관장은 “자본주의는 많이 확산했지만 민주주의 전파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오늘날 세계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 오레스케스 교수는 “학문 분야는 생물, 물리, 철학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배고픔, 질병, 기후변화, 소득의 불평등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며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날 인류가 맞이한 여러 문제를 진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마틴 리터체코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은 “현 위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반정치적인 정치가 필요하며 서로 연대하는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과거 하벨의 도덕적 책임과 정치활동에서의 반정치적 정치를 강조했다.

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인 할렘 브룬틀란드 전 총리는 “오늘날 우리는 지구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인간의 삶, 자연 생물다양성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행성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가 응답한 PBF “진정한 행성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이번 PBF에서는 석학들과 미래세대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다. 세대는 다르지만, 현재 같은 행성 문제를 맞닥뜨린 이들은 인간의 가치부터 교육까지 여러 고민을 주고받았다.

학생 패널로 참여한 박시은(국제학 2022) 씨는 “기후변화, 정치적 도전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은 “어떤 가치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종교, 정치 등 여러 관점에서 타인의 의견을 이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수연(정치외교학 2023) 씨는 “기존의 틀을 넘어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과 캠퍼스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행성 시민이자 변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오카야마대 요코이 아츠후미 부총장은 “행성 지구와 인간의 웰빙을 위한 교육적 조치로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며 멘토십 프로그램(멘토링과 인턴십을 합친 프로그램), 교과과정 개혁, 리더십 포용, 변혁적 교육학을 강조했다.



① 조 이사장은 특별대담에서 “새로운 이슈에 이유를 묻고 과거와 다른 도전과제를 맞이할 때”라고 강조했다. ② 학생 패널로 참여한 박 시은 “기후변화, 정치적 도전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진=김유경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시은(경영학 2024) 씨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관점을 많이 들어보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PBF “10년 뒤 PBF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내년도 PBF는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2026년에는 제45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제2회 미원평화상,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시민청년

포럼이 개최된다.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시민청년포럼은 지난 2009년에 UN, 유네스코, NGO협의체 등의 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다. 내년 기념행사는 세계평화의 날인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미래문명원은 “내년 행사를 위해 전 세계에 보내는 오픈 레터(open letter)를 기획하고 있다”며 “편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와 필요를 알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원평화상 수상

절차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개교기념일에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PBF가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단순한 행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래문명원 김원수 원장은 “앞으로 PBF의 목표는 대학이라는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학술 연구에서 시작해 실천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며 “10년 뒤 PBF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는 소망을 얘기했다.